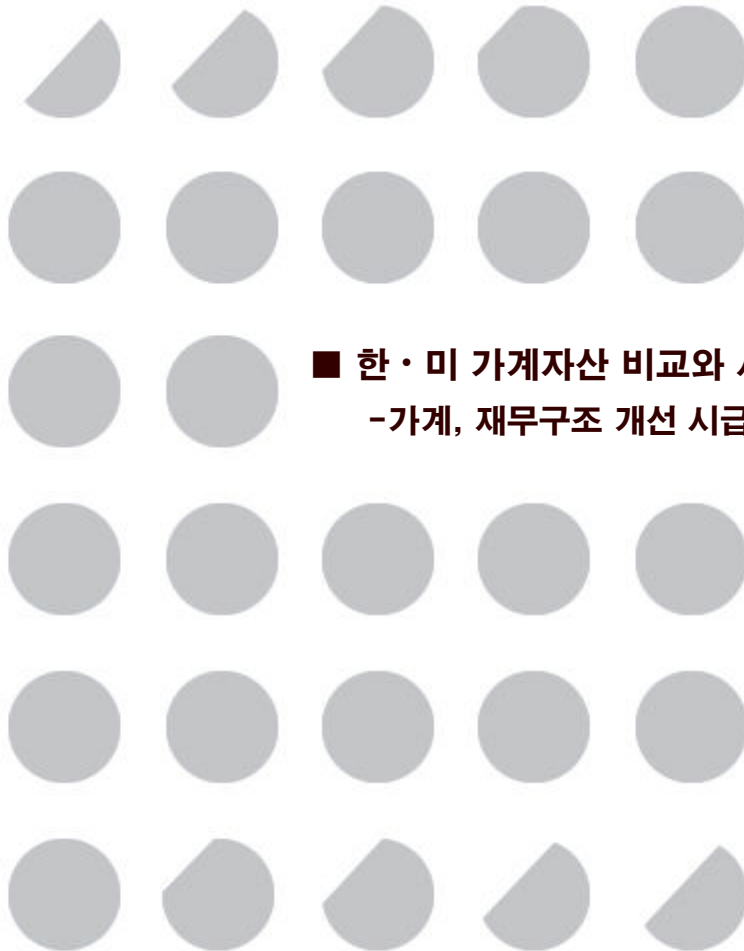




07-22 (통권 253호)

2007.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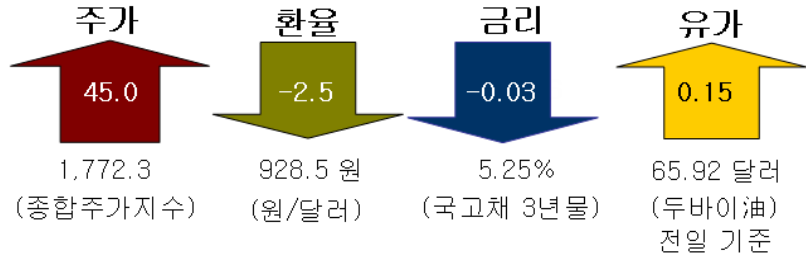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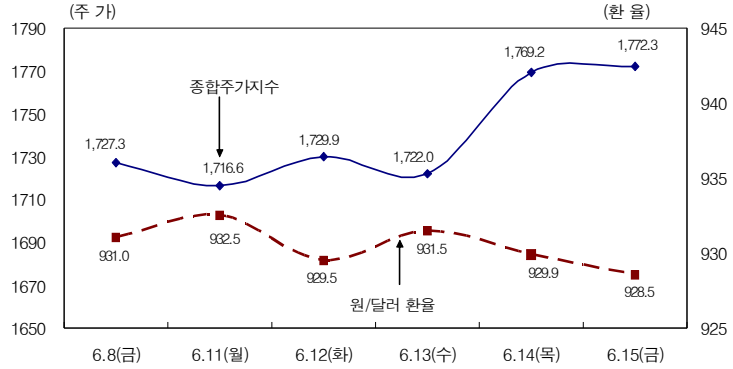
# 韓國經濟週評



■ 한·미 가계자산 비교와 시사점  
-가계, 재무구조 개선 시급

**BETTER THAN  
THE BEST!**

月間 主要 經濟 指標 (6.8~6.15)



차 례

<b>주요 경제 현안</b> .....	1
□ 한·미 가계 자산 비교와 시사점 - 가계, 재무 구조 개선 시급 .....	1
<b>주간 경제 동향</b> .....	13
□ 실물 부문 : 5월 고용 시장 개선 정체 .....	13
□ 금융 부문 : 증시의 호조 지속 .....	14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유 병 규 산업전략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 지식산업실 : 박 덕 배 연 구 위 원 (3669-4009, dbpark@hri.co.kr)

## Executive Summary

### □ 한미 가계 자산 비교와 시사점

#### - 가계, 재무구조 개선 시급

최근 부동산버블, 고령화 문제 등으로 국내 가계의 자산 구조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기서는 1990년대 이후 다른 어느 국가보다 고령화 위기를 순조롭게 넘기고, 최근 부동산시장을 연착륙시킨 미국 가계의 자산구조와 비교함으로써 우리 가계 자산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 한미 가계자산 비교

첫째, 국내 가계는 토지·주택 등 실물자산 선호 경향 때문에 실물자산의 비중이 유난히 높다. 2006년 5월 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가구당 평균 총자산 2억 8,112만원 중 부동산이 76.4%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서 금융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는 전·월세보증금을 부동산으로 간주할 경우 81%로 더욱 높아진다. 반면 미국 가계의 경우 가계 총자산에서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으로서 금융자산이 실물자산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국내 개인의 금융자산 중에서는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현금과 은행예금 등 대부분 유동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비교적 높은 저축성향을 지니고 있는 개인들이 전통적으로 현금과 예금 보유를 선호한 점도 있지만, 외환위기 이후 안전자산선호 현상의 심화에 따른 비정상적인 자금흐름 때문이다. 최근 주식 등 자본시장 상품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안전성이 높은 예금이 50% 정도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 가계의 금융자산 중 자본시장(주식) 관련 직·간접투자 상품의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예금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셋째, 가계 재무구조 건전성도 미국에 비해 열악하다. 2006년 기준 금융부채대비 금융자산 배율은 미국 3.16, 한국 2.12이며, 개인총가처분소득대비 금융부채는 미국 1.39, 한국 1.52이다.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단기 조달 비중이 매우 높다. 2002년 이후 부동산가격이 급등할 때 시중자금이 집중된 은행권으로부터 비교적 단기의 주택담보대출 형식의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금융기관 차입은 주로 주택구입과 소비자금융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2006년말 현재 장기모기지론이 70% 이상, 할부금융 등 소비자신용이 20% 정도 차지하고 있다.

## 문제점과 과제

최근 국내 개인의 금융자산 규모는 2002년 1,000조원을 넘어선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 말 현재 1,472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2003년 이후 통화와 예금 비중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는 대신 채권과 주식의 비중은 꾸준히 높아지고, 금융부채도 점차 장기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가계 자산은 미국과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자칫 여러 문제점에 직면할 수 있다.

**첫째, 국내 가계의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실물자산 보유가 과잉된 상태에서 자칫 유동성위기에 빠질 수 있다.** 현재 가계의 재무구조는 부동산가격 하락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유동성 면에서의 고정 실물자산, 단기 금융부채라는 자산부채의 불일치 현상에 노출되어 있다. **둘째, 과도한 실물자산, 예금편중 금융자산 구조로는 곧 다가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에도 어렵다.** 초저금리 시대에 안전자산 위주의 자산 운용으로는 적절한 수익을 창출하기가 어렵다.

미국의 경우 1990년 당시 물가안정과 고성장의 동시 달성, 고용창출, 재정수지의 흑자전환 등 신경제효과를 통하여 경기호황 국면이 지속되면서 주식시장이 장기 상승세에 진입하였다. 이와 동시에 고령화된 베이비부머들이 노후생활에 대비한 금융자산 수요가 증가하면서 은행예금에서 펀드 형태의 주식으로 투자패턴이 변화하였으며, 그 덕분에 미국은 어느 국가보다 고령화 사회에 순조롭게 적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금융자산이 많고 주택관련 부채가 장기부채인 상태에서 2006년말 부동산시장이 경착륙할 때도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었다.

이제 정부, 금융기관, 개인들의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먼저 정부는 획기적인 금융시장 개혁으로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여 **개인의 자금을 금융시장, 특히 자본시장으로 유도하는 것이 시급하다.** 고령자의 특성상 은퇴 후 오랜 기간 동안 안전성과 수익성이 조화된 자산이 필요한 바, 정기적인 장기국채 발행을 통한 국채시장의 육성이 요망된다. 또한 장기보유펀드에 대해서 이자 및 배당소득세의 공제 등 장기투자 상품 중심의 세제지원체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금융기관은 개인금융자산 시장의 변화에 대비하여 신상품 개발, 급격한 자금이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려는 노력 등이 요구된다. 가계도 지나친 실물자산, 예금 위주의 금융자산 등에서 탈피하여 주식, 보험, 연금 등 자본시장 상품을 적절히 배합한 포트폴리오 재구성이 필요하다.

< 한·미 가계 자산 비교와 시사점 >

- 가계, 재무 구조 개선 시급 -

한·미  
가계 자산  
비교

- ❖ 한국, 실물자산 비중이 매우 높음
  - 최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국내 가계의 실물자산 비중이 76.8%이며, 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전·월세보증금을 부동산으로 분류할 경우 81%로 상승
  - 반면 미국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 상승이 반영되어 실물자산 비중이 많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자산의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 한국, 금융자산 중 예금 등 안전자산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
  - 비교적 높은 저축성향, 외환위기 이후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의 심화로 안전성이 높은 예금이 50% 정도를 차지
  - 반면 미국의 경우 금융자산 중 자본시장(주식) 관련 직·간접투자 상품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예금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
- ❖ 한국, 가계 재무구조 건전성도 열악한 상황
  - 2006년 기준 금융부채대비 금융자산 배율은 미국 3.16, 한국 2.12이며, 개인 중가처분소득대비 금융부채는 미국 1.39, 한국 1.52
  -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주택담보대출 형식의 단기 조달 비중이 높은 반면, 미국의 경우 금융기관 차입은 장기모기지를 위주로 구성

문제점

- ❖ 현재의 가계 재무구조로서 부동산 가격 하락 시 대응능력 부족
  - 부동산가격 하락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유동성 면에서의 고정 실물자산, 단기 금융부채라는 자산·부채의 불일치(mis-match) 현상에 노출
- ❖ 빠르게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힘들
  - 초저금리 시대 과도한 실물자산, 예금편중 금융자산 구조로는 적절한 수익 창출 어려움

과제

[정부]

- 획기적 시장개혁으로 자금의 선순환 구조 확립하고, 개인의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도
- 장기국채의 기준금리 기능 제고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인 장기국채 발행
- 장기보유펀드에 대해서 이자 및 배당소득세의 공제 등 세제지원체계 강화

(금융기관)

- 개인금융자산 시장의 변화에 대비하여 신상품 개발
- 급격한 자금이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려는 노력

(가계)

- 지나친 실물자산, 예금 위주의 금융자산 등에서 탈피하여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재구성
- 자본시장 상품에 대한 간접투자를 증대할 필요

## 1. 국내 가계자산의 운용·조달 추이

### (1) 운용

- 2007년 3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6년 5월 31일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가구당 평균 총자산 2억 8,112만 원 중 부동산이 76.8%, 금융자산이 20.4%로 부동산이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 저축, 보험, 전·월세보증금 등 금융자산(저축총액)은 5,745만원, 부동산(주택, 토지, 건물 등) 2억 1,604만원, 기타자산(자동차, 회원권 등) 764만원

#### < 2006년 가구당 평균자산 및 구성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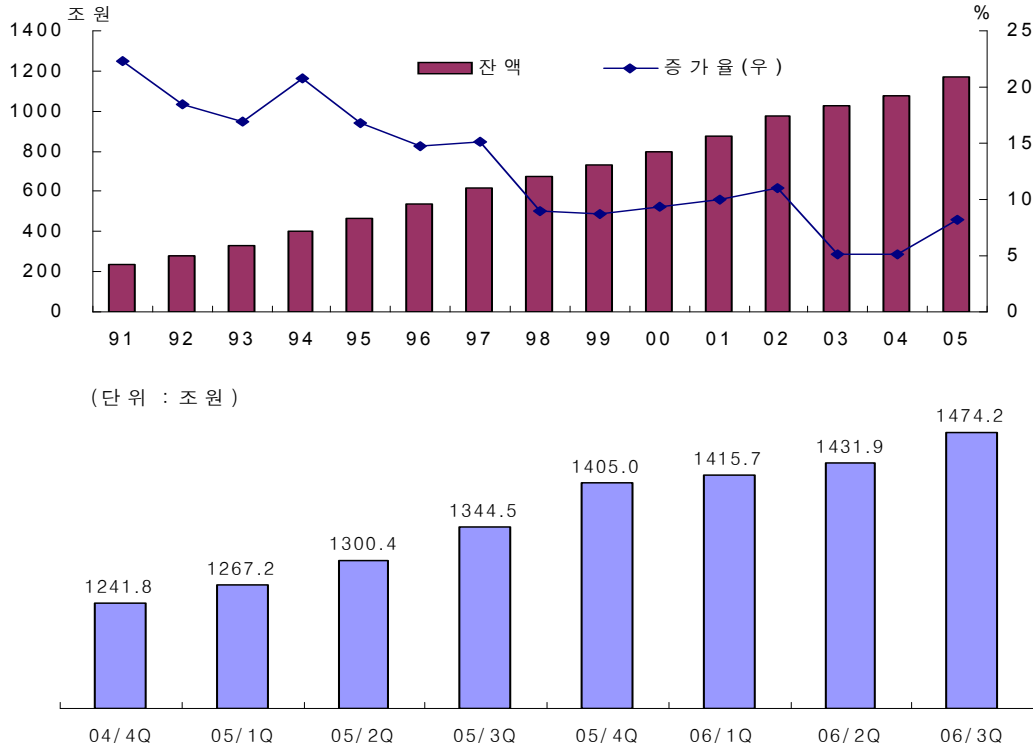
	가구당 평균 자산(만원)	자산구성비(%)
- 총자산	28,112.3	100.0
○ 금융자산(저축액+ 전월세보증금)	5,744.8	20.4
○ 부동산(주택, 토지, 건물 등)	21,604.1	76.8
○ 기타자산(자동차, 회원권 등)	763.5	2.7

자료 : 통계청

- 한국은행 자금순환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개인 금융자산의 규모는 2002년 1,000조원을 넘어선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말 현재 1,472조원을 기록
  - 국내 개인금융자산 증가율은 비록 2000년대 들어 둔화되기는 하였지만 이후 견조하게 증가하여 2006년말 현재 1,470조 원을 기록<sup>1)</sup>
  - 개인금융자산 규모의 성장은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의 상승으로 인한 저축여력 확대, 금융저축수단의 다양화, 금융기관 차입(조달) 증가 등에 기인

1) 1993 SNA 기준 자금순환통계 개편으로 과거 편제방식으로는 2005년까지 공표됨에 따라 2006년 이후의 데이터와는 연속성이 끊어짐. 개인 자산측면에서 과거 데이터와 가장 큰 차이는 채권과 주식 등 자본시장 상품이 장부가 평가에서 시가 평가로 바뀌었다는 것임

< 국내 개인금융자산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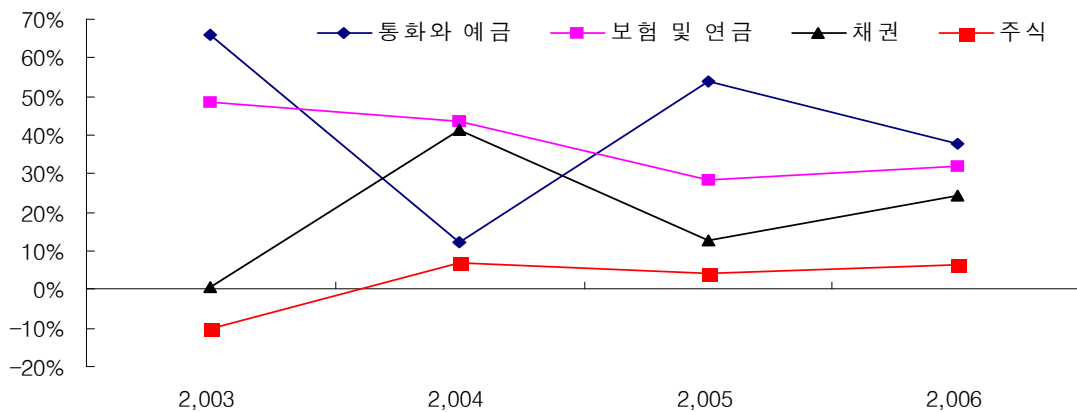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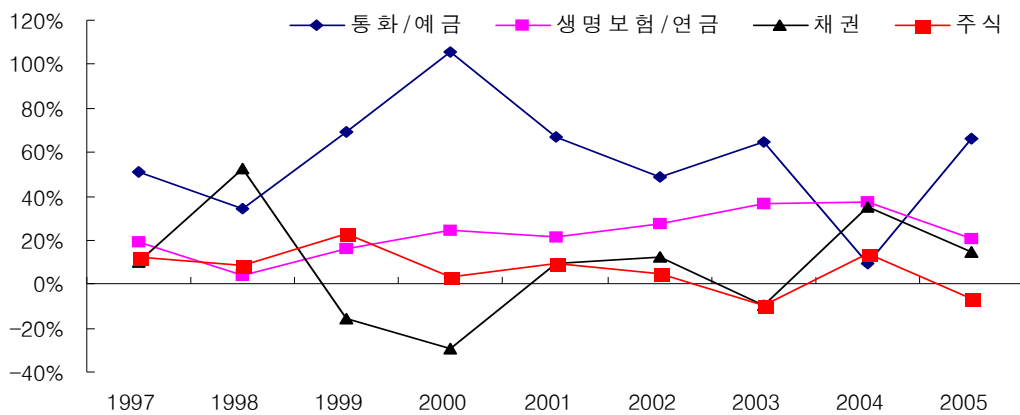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자금순환.

○ 외환위기 이후 개인의 금융자산의 변화를 보면 예금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생명보험/연금은 꾸준한 증가하고, 채권은 등락세를 거듭하고, 주식은 미미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 (예금) 저금리시대로 접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금융시장 불안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심화되면서 은행권의 예금형태로 자금이 집중됨
  - 대우사태 이후 미 9.11테러, SK 및 투신카드채 환매 사태 등 일련의 금융 불안 사태로 안전성 선호(Flight to Quality) 현상이 강화되면서 초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은행권으로 자금유입 급증
  - 2003년 이후 실질금리 제로 또는 마이너스 시대로 진입하면서 예금으로의 유입현상 뚜렷한 둔화세를 보였다가 2005년 다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
- (생명보험/연금) 외환위기 이후 경제상황이 급변하는 가운데 개인의 리스크 관리 기능이 부각되면서 생명보험/연금의 비중은 견조한 증가세를 시현함
  - 특히 종신보험, 변액보험, 건강보험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음

- (채권) 1999년 대우사태 이후 원금손실을 경험한 개인들이 채권보유를 저축에서 투자로 인식을 전환하면서 채권 보유를 축소시킴
- .외환위기 직후 초고금리 현상이 나타났을 때 일시적으로 채권 보유를 증가시켰으나, 1999년 하반기 대우사태 이후 원금손실을 경험하면서 채권을 위험자산으로 인식하였음
- .그러나 2002년부터 본격 초저금리 시대로 진입하면서 안전성 선호 현상이 약화되면서 다소 수익성을 추구하는 성향이 나타나면서 증가세를 시현

< 외환위기 이후의 개인금융자산의 증감 추세 >



자료 : 한국은행, 자금순환.

- (주식) 외환위기 직후 코스닥 열풍에 힘입어 주식보유가 증가하였으나 대우사태 이후 개인들은 주식 시장을 지속적으로 외면하다가 2004년 이후 개인의 주식보유는 증가하고 있으나 매우 미미한 상황



· 그러나 최근 저금리 등으로 개인의 수익률 선호 의식이 높아진 데다 금융 혁신 및 금융규제 완화 등으로 다양한 시장형 금융상품이 대거 등장하면서 적립식펀드 등을 통한 간접투자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개인의 금융자산 구성은 현금과 은행예금 등 대부분 유동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점차 채권과 주식 등 자본시장 상품의 운용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 1997년말 616.8조 원의 개인금융자산 중 현금(통화) 및 예금이 58.9%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추세는 2002년까지 지속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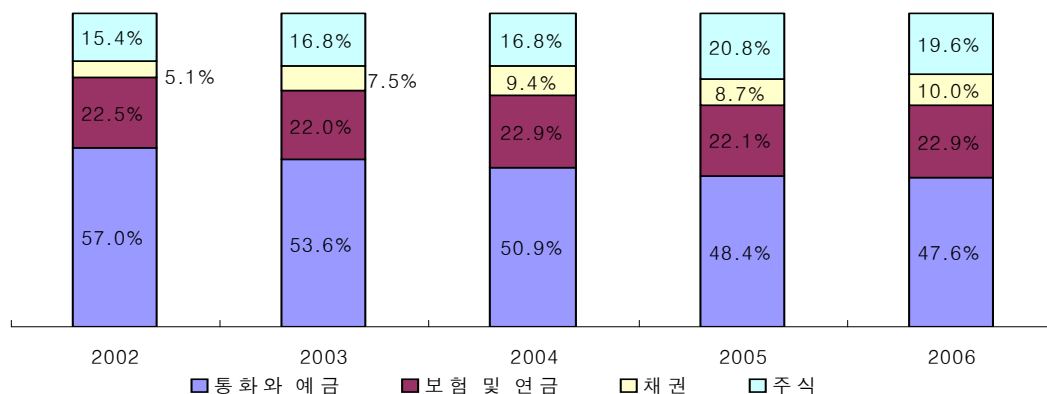
· 비교적 높은 저축성향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전통적으로 현금과 예금 보유를 선호한 점도 있지만, 외환위기 이후 안전자산 선호 현상의 심화에 따른 비정상적인 자금흐름에도 기인됨

- 2003년 이후 현금(통화)와 예금 비중은 서서히 떨어지고 있으며, 대신 채권과 주식의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 저금리에 지친 투자자들이 수익률에 민감해지면서 예금 위주의 자산보유에서 탈피하기 시작하면서 MMF, 적립식펀드 등 투자를 증가시킨 것과, 주가 상승에 따라 시가평가 체계에서 주식보유 비중이 증가한데 기인

- 한편 보험 및 연금은 22~23%대의 꾸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국내 개인금융자산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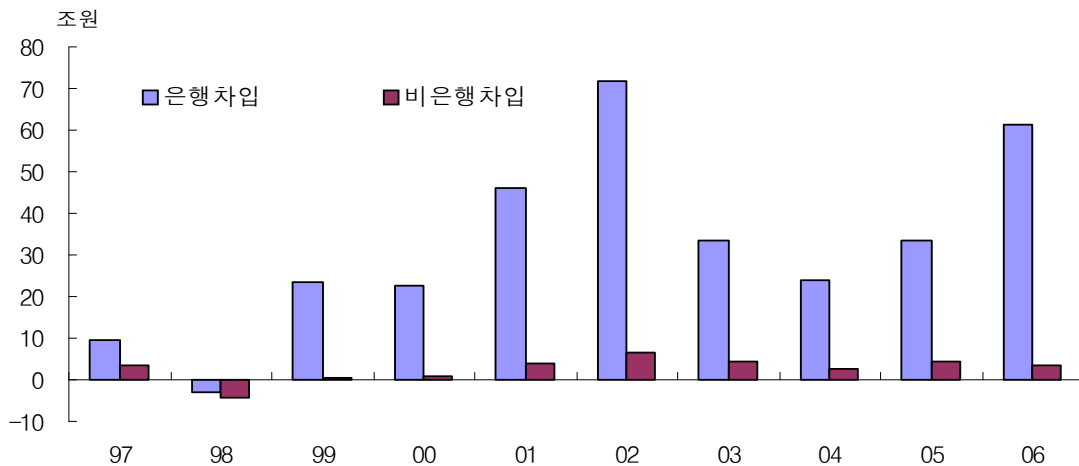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자금순환.

(2) 조달

○ 개인 자산의 증가는 개인 소득 증가 외에도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특히 은행권으로부터의 차입이 크게 늘어난데 기인함

- 국내 개인부문의 연간 금융기관 차입규모는 1997년 32.1조 원에서 2006년 75.9조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개인 자금조달 잔액은 2006년 말 현재 717.8조 원에 달함
- 소비증대 및 경기회복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금융완화정책 등으로 저금리 체제가 형성되면서 차입이 증가
- 특히 2002년 이후 부동산가격 급등 시, 시중자금이 집중된 은행권의 주택 담보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
- 2000~2002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폐지 등 소비자신용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신용카드대출 등 비은행 차입도 크게 늘어나긴 하였으나 절대적 규모에서 은행권 차입에 비해서 크게 위축

< 개인의 금융 차입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자금순환.

주 : 기타차입은 기업신용, 정부융자, 여신전문기관 차입 등.

-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보험세를 보이거나 등락을 거듭하고 있음
- 보험사의 경우 꾸준한 차입을 보이고 있으며, 개인 차입이 거의 없었던 증권사의 경우 2006년 들어 크게 증가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기관은 2000~2002년 정부정책에 힘입은 현금서비스 및 카드대출 등 신용카드 여신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 2003년 카드사태 이후 급격히 줄었다가, 최근 회복 모습을 시현

< 비은행 금융기관 개인 차입 추이 >

(단위 : 조원)

	97	00	01	02	03	04	05	06
보험사	3.6	0.7	4.1	6.6	4.1	2.6	4.5	3.6
종금사	0.2	-0.1	-0.1	0.0	0.0	0.0	0.0	6.9
여신전문기관	0.0	8.0	7.7	12.8	-27.3	-6.3	2.7	2.4
기타	18.9	-3.9	1.2	12.2	13.5	8.2	16.6	1.5

자료 : 한국은행, 자금순환, 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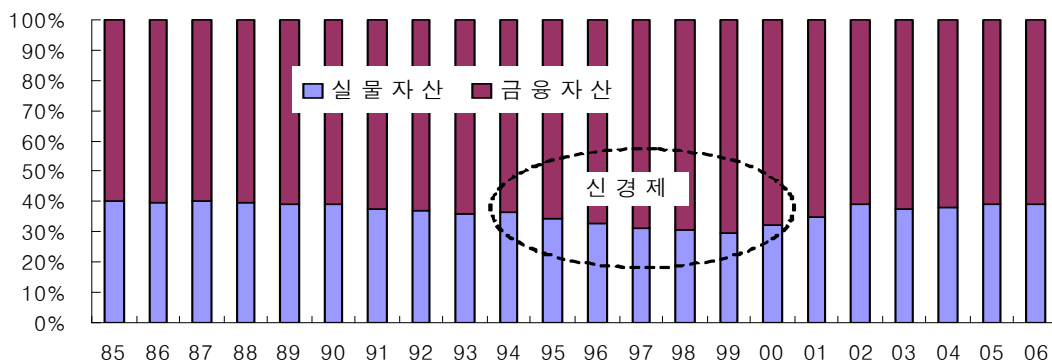
2. 미국 가계자산의 운용조달 추이2)

(1) 운용

○ 미국 가계의 실물자산 대 금융자산의 비중이 40% 대 60% 정도로 금융자산이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금융자산 비중은 90년대 신경제에 의한 증시활황으로 주가가 크게 올라 1999년 70% 수준으로 상승하였다가, 이후 주가하락과 부동산가격 상승 등으로 다시 60% 수준으로 하락함

< 미국 가계의 자산 구성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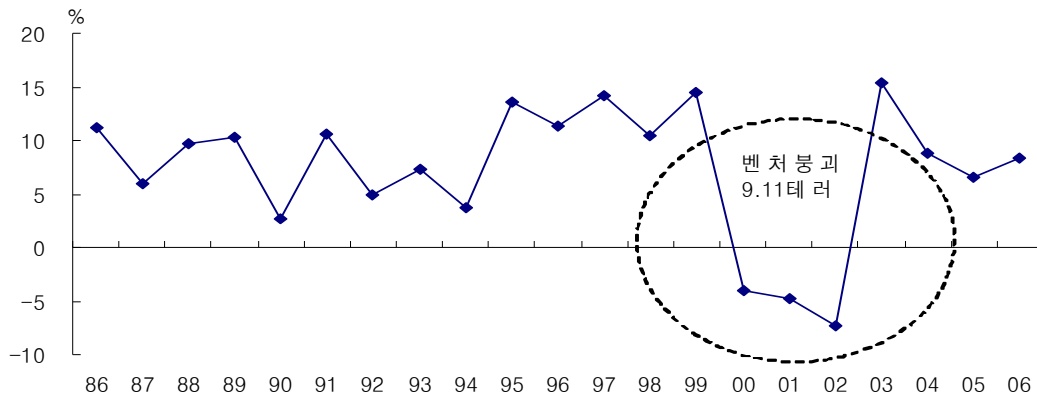
자료 : FRB, Flow of Funds.

2) 다른 어느 국가보다 90년대 이후 대표적으로 고령화 위기를 순조롭게 넘기고, 그리고 최근의 부동산버블 붕괴를 비교적 순조롭게 대처한 미국을 선택·분석하였음.

○ 미국의 금융자산은 80년대 후반 이후 연평균 7.3%의 성장을 거듭

- 미국의 금융자산은 2000년 대 초 신경제 붕괴, 9.11테러 등으로 일시적으로 급락하였지만 이 기간을 제외하고는 9%대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
- 특히 90년대 금융자산 비중이 빠르게 증가한 것은 신경제에 따른 물가안정과 고성장 동시 달성, 고용창출, 재정수지의 흑자전환 등을 통하여 경기호황 국면이 지속되면서 주식시장이 장기 상승 장세에 진입한데 기인(Dow지수는 90년대 310% 상승하였고, 시가총액도 340%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 미국 내 최대 인구집단인 베이비붐세대(1946~1960년대 초반 출생)가 왕성한 경제활동의 주체(1990년대 30~54세)로 자리 잡으면서 이들에 의한 금융자산 취득이 증가함

< 미국 가계의 금융자산 증가율 추이 >



자료 : FRB, Flow of Funds

○ 미국 가계의 금융자산 중 자본시장(주식) 관련 직·간접투자 상품의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예금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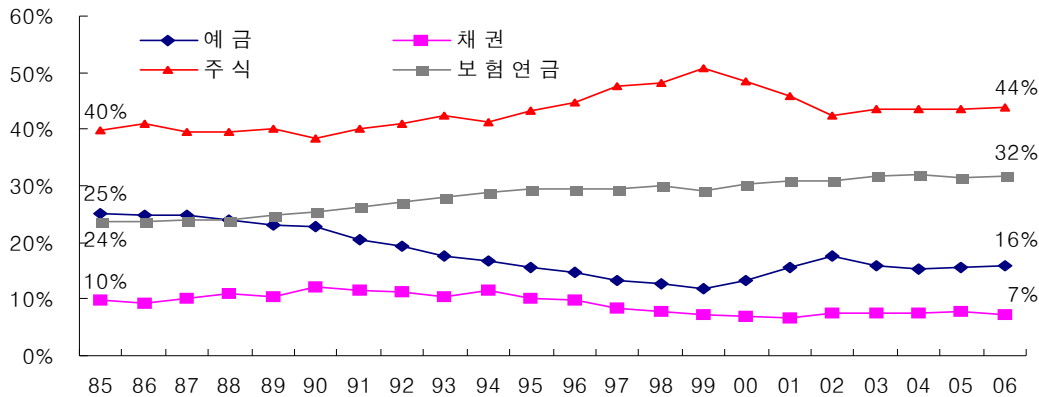
- 인구고령화의 진행으로 노후생활에 대비한 금융자산 수요가 증가하여 은행예금에서 유가증권(주식)으로 투자패턴이 변화
- 예금의 비중은 1985년 25%에서 점차 감소하다가 2000년 증시붕괴와 9.11테러로 일시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하면서 2006년 16%, 채권의 비중도 꾸준히 감소하여 1985년 10%에서 2006년 7%를 기록

·주식관련 금융상품(주식, 뮤추얼펀드, 비상장지분 등)은 1985년 40%에서 꾸준히 증가하다가 90년대 신경제효과가 극에 다다른 1999년에 51%까지 상승하였다가 이후 주가가 하락한데 영향을 받아 2006년 44%를 기록함<sup>3)</sup>

- 보험과 연금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생명)보험보다 연금(pension funds)이 꾸준히 성장한데 기인하고 있음

·미국 베이비붐세대가 자신들의 노후생활에 대비해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에 높은 관심을 지니게 됨

< 미국의 개인 금융자산 구성 추이 >



자료 : FRB, Flow of Funds.

○ 미국 가계의 주식투자 형태는 직접투자 보다는 연기금, 뮤추얼펀드 통한 간접 투자 확산되고 있음

- 연금의 조기인출 제한 등 연금제도 개선노력에 따른 연금기금의 장기투자 유도, 민간차원의 연기금 가입 장려로 연금기금의 자산액이 급증

·연금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은 50% 정도

- 1990년대 들어 뮤추얼펀드 자산총액이 급증세를 보여 1991년초 0.4조 달러 수준에서 1999년말에는 3.4조 달러로 증가

3) 1990년대 들어 효율적인 구조조정의 효과와 신경제 등에 따른 장기호황, 시중금리 하향 안정세, 견조한 주가상승 등이 이어지면서 주식관련 투자형 상품은 수익률과 안정성에 있어 예금상품 보다 훨씬 높은 경쟁력을 지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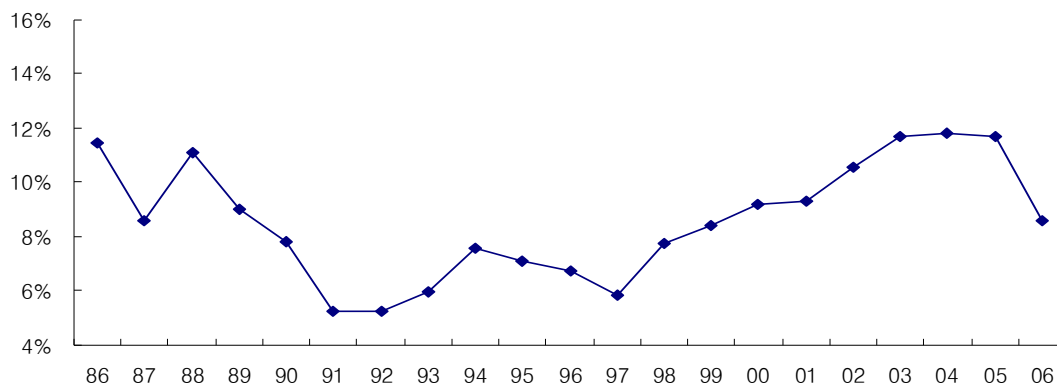
·뮤추얼펀드 급증세는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신규자금 유입과 퇴직연금(401K) 등을 통한 자금 유입에 기인함

(2) 조달

○ 미국 가계의 자산증가는 1990년대 신경제에 의한 개인소득의 증가뿐만 아니라 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차입에도 기인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차입은 주로 주택구입과 소비자금융에서 발생됨

- 국내 개인부문의 연간 금융기관 차입규모 증가율은 신경제 효과가 나타난 1990년대에 낮았었지만 그 외의 기간에는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1986년부터 연평균 8.6%의 증가율을 기록
-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2000년대 들어 빠른 증가세를 보이다가, 부동산가격이 급락한 2006년 그 증가율도 급락함

< 개인의 금융 차입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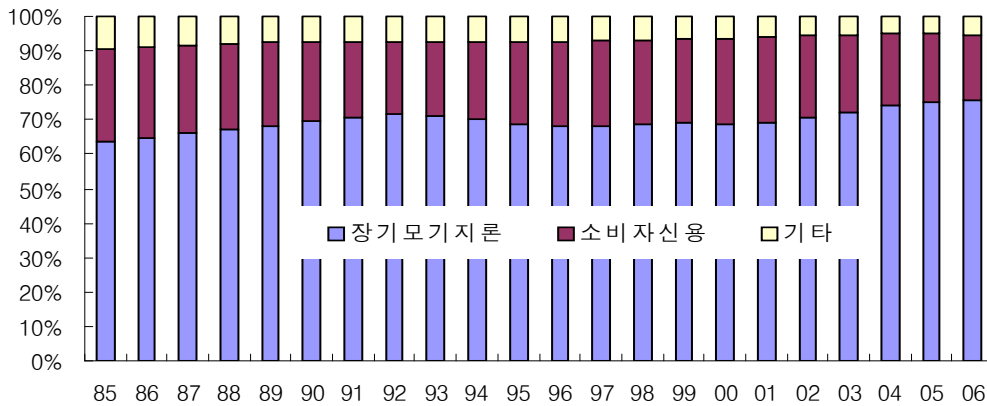


자료 : FRB, Flow of Funds.

- 금융차입의 구성을 보면 2006년말 현재 장기모기지론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할부금융 등 소비자신용이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미국 가계의 주택구입은 대부분 연방저당공사(FNMA), 정부저당금고(GNMA), 연방주택대출저당공사(FHLM) 등 정부관계 유동화 중개기관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장기모기지론을 이용하여 주택을 구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기 모기지론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

·1980년대 25% 수준의 비중을 차지했던 자동차 등 구매 시의 할부금융과 학자금대출 등 소비자신용(consumer credit)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면서 2006년말 현재 19% 수준을 기록

< 미국 가계의 차입 구조 >



자료 : FRB, Flow of Funds.

3. 한미 가계자산 비교와 시사점

○ 미국 가계의 자산 구성과 비교하면 국내 가계의 자산구조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주택 등 실물자산 선호 경향 때문에 금융자산 비중이 낮고 실물자산 비중이 유난히 높음
  - 2007년 3월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국내 가계 총자산에서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금융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는 전·월세보증금을 부동산으로 간주할 경우 76.8%가 아니라 81%로 상향됨
  - 반면 미국의 경우 2006년 실물자산의 비중은 2000년대의 부동산가격 급등 현상이 반영됨에도 불구하고 39%에 그침
- 금융자산을 비교해 보면 최근 주식 등 자본시장 상품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안전성이 높은 예금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최근 적립식펀드 형태로 가계들의 주식 간접투자가 늘어가면서 주식의 비중이 늘어가고 있지만 아직 예금이 50% 정도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
- 반면 미국은 주식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40%대 이상으로 차지하고 있으며, 보유 형태도 직접투자보다 간접투자가 확대되고 있음

- 한편 가계 재무구조 건전성도 미국에 비해 크게 열악한 상태임
- 2006년 기준 금융부채대비 금융자산 배율은 미국 3.16, 한국 2.12이며, 개인 총가처분소득대비 금융부채는 미국 1.39, 한국 1.52<sup>4)</sup>
- 특히 금융부채의 경우 한국은 주택담보대출 등 단기 조달 비중이 크게 비하여 미국의 경우 대부분 주택관련 모기지론이 대부분임<sup>5)</sup>

○ 미국과 비교한 국내 가계자산의 운용과 조달구조로서는 부동산버블 문제를 앓고 있는 현 상황에서 상당히 불안하며, 동시에 빠르게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에 적응하기에는 매우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

- 가계의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실물자산 보유가 과잉된 상태에서 가계는 자칫 유동성위기에 빠질 수 있음
- 반면 주택담보 가계대출에 크게 의존한 사람의 자산은 유동성이 낮은 실물자산의 형태로 지니고 있음
- 현재 가계의 재무구조는 부동산가격 하락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에 유동성 면에서의 고정 실물자산, 단기 금융부채의 자산/부채의 불일치(mis-match) 현상에 노출되어 있음<sup>6)</sup>
- 과도한 실물자산, 예금편중 금융자산 구조로는 곧 다가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는 매우 미흡함

4) 미국의 경우 신경제 거품이 붕괴되면서 보유주식 가치가 급락하면서 개인 금융자산은 줄어든 반면 부동산 경기가 호황을 보이면서 주택구입을 위해 금융기관 대출이 크게 늘어나 금융자산/부채 비율이 큰 폭 하락함


5)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는 약정 기준으로는 만기가 10년을 초과하는 장기상품의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빈번한 주택매매 등으로 인해 존속 기간 기준으로는 3년 이내의 상황이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70%를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됨

6) 비탄력적인 부동산의 경우 가격 급락 시 팔려고 매물을 내 놓아도 팔릴 수가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



- 초저금리 시대에 안전자산 위주의 자산운용으로는 적절한 수익을 창출하기가 어려움
- 고령자의 특성상 은퇴 후 오랜 기간 동안 안전성과 수익성이 조화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시장은 매우 미흡함

○ 가계자산 시장의 규모가 증가하고 자본시장 상품 중심으로 구성 변화가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 금융기관, 개인들의 적절한 대응이 요구됨

- (정부) 획기적인 금융시장 개혁으로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여 개인의 자금이 금융시장, 특히 자본시장으로 유입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시급
  - 중장기적으로 장기국채의 기준금리 기능 제고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인 장기국채 발행을 통한 국채시장의 육성이 요망됨
  - 장기 간접투자상품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장기보유펀드에 대한 이자, 배당소득세의 공제 등 장기투자 상품 중심의 세제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우수한 운용인력의 양성이 시급함
- (금융기관) 개인금융자산 시장의 변화에 대비하여 신상품 개발, 급격한 자금이동에 따른 충격 완화 노력 등이 요구됨
  - 개인의 금융자산에 특히 투자성 상품에 대한 요구 증가에 대비하여 자본시장 관련 신상품 개발
  - 급격한 자금이동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에 대비한 사전 위험관리와 개인들의 신용위험 상승에 대비하여 급증하고 있는 가계대출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연구 등
- (개인)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되, 자본시장 상품에 대한 간접투자를 증대할 필요가 있음
  - 지나친 실물자산, 예금 위주의 금융자산 등에서 탈피하여 주식, 보험, 연금 등 자본시장 상품을 적절히 배합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함
  - 자본시장 상품에 대한 투자도, 직접투자보다는 리스크관리 장치가 보완된 간접투자가 바람직함 

주간 경제 동향

□ 실물 동향 : 5월 고용 시장 개선 정체

○ 5월 고용률(취업인구비율)은 60.7%로 전년동월에 비해 0.1%p 상승하였으나, 같은 기간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15세이상인구)이 62.7%에서 정체되고, 실업률도 3.2%로 전년동월과 동일한 수준에 그침

- 산업별 취업자 변동을 살펴보면 내수 경기 상황을 반영해 주는 제조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이 각각 전년동월대비 5만 6,000명 및 5만 5,000명이 감소  
·반면 사업서비스업·개인서비스업·공공서비스업 부문이 33만 9,000명이 증가하여, 취업자 수는 전체적으로 27만 4,000명이 증가
- 한편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 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1년 내 구직 경험이 있었던 사람을 의미하는 ‘구직 단념자’ 는 9만 9,000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6,000여명이 감소  
·그러나 18시간미만 취업자가 78만 명으로 전년동월보다 7만 3,000명이 증가하는 등 시장 내부적 개선은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판단
- 최근 내수 회복으로 고용 상황 개선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기업 투자 부문이 크게 활성화되지 못함에 따라 향후 경제의 고용창출력은 미약한 수준이 예상

< 주요 실물 경제 지표 >

(전년동기대비, %)

		2005	2006				2007				
			연간	1/4	2/4	3/4	4/4	1/4	4월	5월	
경기	경제성장률	4.2	5.0	6.3(1.0)	5.1(0.8)	4.8(1.2)	4.0(0.9)	4.0(0.9)	-	-	
	수요	소비재판매	4.1	4.7	5.3	6.1	2.9	4.5	7.1	4.9	-
		설비투자추계	6.3	7.4	6.2	6.7	11.8	5.1	11.3	15.6	-
		건설수주	7.3	9.0	-8.5	-14.7	37.1	27.1	26.3	48.9	-
		수출	12.0	14.4	10.6	16.9	16.3	13.8	14.9	17.1	11.9
	공급	산업생산	6.3	10.1	12.8	11.5	11.3	5.2	3.3	6.7	-
		취업자수 (만명)	2,286	2,315	2,258	2,341	2,331	2,330	2,284	2,352	<b>2,376</b>
		실업률 (%)	3.7	3.5	3.9	3.4	3.3	3.2	3.6	3.4	<b>3.2</b>
수입		16.4	18.4	19.7	20.4	21.1	13.0	13.2	19.8	13.6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166	61	-11	7	4	61	-16	-19	-	
	무역수지 (억\$)	232	161	13	48	25	75	28	6	15	
물가	소비자물가	2.8	2.2	2.1	2.2	2.5	2.1	2.0	2.5	2.3	
	생활물가	4.1	3.1	3.1	3.1	3.5	2.6	2.3	2.9	3.1	

주 : 경제성장률의 ( )안은 계절조정 전기비 기준, 진한 글자체는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임

□ 금융 동향 : 증시의 호조 지속

○ (해외 금융 시장) 미 국채 금리 상승

- 금리: 주중 그린스펀 전연준 총재의 금리 상승 전망 발언 등의 영향으로 5.29%까지 상승하였으나, 저가 매수세 유입 등으로 하락세로 반전하여 5.22%로 마감 (국채 10년물 : 5.10→5.22%)
- 환율: 달러화는 유로지역의 주요 경제지표의 예상치 하회 등으로 유로화에 대해 강보합세, 엔화에 대해서는 일본은행의 정책금리 동결 예상에 따른 금리차 지속 전망 등으로 강세 (\$/€: 1.3373→1.3312, ¥/\$: 121.7→122.9)

○ (국내 금융 시장) 주가 사상 최고치 경신

- 주가: 주 초반까지 주가 급등에 따른 조정 장세를 보인다, 주 중반 글로벌 증시의 강세, 외국인 투자자의 지수 선물 순매수에 따른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 등으로 급등하여 사상 최고치 경신 (1,727.3→1,772.3)
- 금리: 경기 회복에 따른 하반기 금리 인상 전망 확대에도 불구하고, 미 장기 금리 하락 및 단기급등에 따른 저가매수세 유입 등으로 전주말 대비 소폭 하락 (국고채 3년 수익률, 5.28→5.25%)
- 환율: 엔/달러 환율 상승 및 외국인주식 순매도에도 불구하고, 조선업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기업의 달러화 환전 수요 등으로 전주말 대비 하락

○ (전망) 주가의 급등에 따른 조정으로 소폭 하락 전망

< 주요 금융 지표 >

		2005	2006				2007		
		4/4	1/4	2/4	3/4	4/4	1/4	6.8.	6.15 <sup>1)</sup>
국내	거래소 주가	1,379.4	1,359.6	1,295.2	1,371.4	1,434.5	1,452.5	1,727.3	<b>1,772.3</b>
	국고채3년(%)	5.08	4.93	4.92	4.57	4.92	4.76	5.28	<b>5.25</b>
	원/달러	1,011.6	971.6	948.9	946.2	929.8	940.9	931.0	<b>928.5</b>
해외	DOW	10,718	11,109	11,150	11,679	12,463	12,354	13,424	<b>13,554</b>
	Nikkei	16,111	17,060	15,505	16,128	17,226	17,288	17,779	<b>17,842</b>
	미국채10년(%)	4.39	4.85	5.14	4.63	4.70	4.57	5.10	<b>5.22</b>
	일국채10년(%)	1.48	1.78	1.93	1.68	1.69	1.60	1.90	<b>1.97</b>
	달러/유로	1.1849	1.2118	1.2790	1.2674	1.3199	1.3354	1.3373	<b>1.3312</b>
	엔/달러	117.75	117.78	114.42	118.18	119.07	117.83	121.73	<b>122.92</b>
	두바이(\$/배럴)	53.19	59.16	67.17	57.33	56.71	63.12	65.77	<b>65.92</b>

주 : 1) 해외지표는 전일(6.14) 기준